



## 01. 내 자신을 알아야 술과 친구가 될 수 있다.

나병길 자유기고가

술은 아주 먼 옛날 과실이나 곡식이 떨어져 발효되어 그 곳을 지나는 동물들이 목이 말라 물을 찾다 웅덩이에 고여 있는 즙을 먹기 시작하면서 유래가 되었다고 한다. 아마도 이동성이 더 자유로운 특성 때문에 사람보다 먼저 접하기 쉬웠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가끔 아프리카에서는 코끼리나 멧돼지 등이 자연적으로 발생되어진 고인 술을 먹고 휘청거리고, 텃구는 것이 발견되기도 한다고 한다. 동물보다 늦게 술을 마시기 시작한 인류는 스스로 술을 만들고 저장하는 방법을 터득하여 오늘날 인류가 애용하는 술들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다.

예나 지금이나 술을 마시는 까닭에는 별다른 변함이 없고 인간의 행동에 놀라운 영향을 끼쳐오고 있다.

가끔씩 인터넷이나 대중매체에 나오는 연예인이나 할리우드 스타들의 술로 인한 망신살에 대한 소식들을 접하다 보면 술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보통사람과 다름없어 보이거나 하는 생각이 든다. 얼마전에는 세계적인 유산 상속녀 패리스 힐튼이 술 때문에 수감찬 얘기가 화제가 됐다. 내 돈 가지고 내가 마시는데 무슨말이 많으냐고 하면 할말이 없지만 그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은 범위내에서 인정되는 지극히 단순한 말이다.

술은 혈액순환과 긴장완화 등 인간에게 도움을 주는 만큼 폭음이나 과음은 건강을 해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자신은 물론 가정파탄 등 가족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기도 한다. 상처가 회복되는 시간도 시간이지만 그런 환경이 대물림된다고 생각해 보면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회사생활을 하면 회식자리에서 권하는 술을 아랫사람이 거부할 수 없었던 우리의 술 문화는 마스크 홍보활동과 세대교체, 웰빙 등으로 인한 인식이 차츰 달라지고 있음을 느낀다. 최근 공익광고에 단체회식자리에서 상사가 권하는 술을 직원이 거부하자 분위기가 잠시 일그러진 듯 하다가 센스있게 음료를 시켜주는 상사를 향해 환호의 브라보를 외치는 광고가 사뭇 외도는 것은 바람직한 술문화의 제자리 찾기 모습에 동감하기 때문일 것이다.

사실 '부서라 마셔라'의 술문화 때문에 화합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불편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적당히 마시면서 평소 말하기 힘들었던 부분에 대해서 부드럽게 얘기할 수 있고 포용력을 발휘해 준다면 화합과 업무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으니 이 얼마나 일석이조의 기회인가. 다른건 차치하고라도 인간적인 대화의 장이 될 수만 있다면 지치고 힘든 현대인의 삶이 팍팍하지 않고 조금은 여유로워 질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불가피하게 술을 마셔야 한다면 서로서로 지켜야 할 것을 지키면서 정도가 지나치지 않게 마시고 술을 권하는 문화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나 자신부터 추스릴 수 있는 법을 배워야 한다. 평소에 깎듯하고 일도 잘하는데 술자리에 오면 일순간에 무너지는 사람들이건 아닌데 뒤늦은 후회를 해보지만 이성은 이미 내뿜을 떠난상태)이 있다. 술은 자신을 다스릴줄 아는 자(術)만이 진정한 술꾼으로 인정하고 상대해 주는 철학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잠시 해본다. 긴장이나 불안안을 해소해주고 스트레스에서 해방감을 맛볼 수 있도록 하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성보다는 감정이 뇌세포를 지배하는 아쉬움이 있다. 우리곁에 깊이 말없이 스며있는 술. 펠레야 펠 수 없다면 같이 친해지자. 그리고 서로를 들여다보는 감성을 가지자. 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는 말이 있다. 조화로운 가운데 이루어져야 그 가치가 돋보이는 것이 아닐까?



## 02. 사랑과 애정을 이어주는 술의 힘

박현욱 자유기고가

술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크게 두가지로 나뉘본다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으로 나눌수 있겠다. 개인적으로는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이 강하다.

돌아가신 친정아버지는 술을 아주 좋아하셨다. 달리 말씀이 많지 않으셨던 아버지는 술잔잔 걸치시면 농담도 잘하시고 용돈을 주시기도 하셨다. 용돈을 받으면 온전히 그 돈은 나의 자유이용